女궁사 이특영 광주시청 입단

광주체고 국가대표…대학 대신 실업행 결정

양궁 국가대표 이특영(18·광주체고)이 내년부터 고향팀인 광주시청 양궁팀에 몸담게 됐다.

광주시청은 25일 이특영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특영은 내년 1월1일부터 광주시청 소속으로 박채순 감독의 지도를 받아가며 박미경, 허윤정, 이은진, 두가영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특영은 대학(한국체대)에 진학하지 않고 실업팀을 선택한 데 대해 "중·고교 내내 광주에서 활약해온 만큼 앞으로도 광주의 딸로 남고 싶었다"며 "올해 첫 올림픽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특영은 2005년 국가대표로 뽑힌 뒤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따내며 기대주로 떠올랐고, 작년 도하 아시안게임과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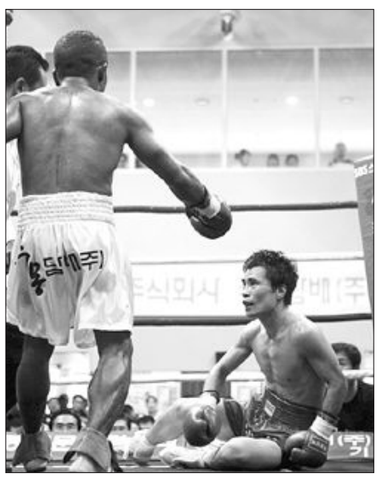
160㎝도 되지 않는 단신인 이특영은 대담성과 정확한 슈팅자세가 장기로 승부욕 또한 뛰어나 여고생 출신으로 시드니올림픽 2관왕에 오른 윤미진(경희대)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요삼 1防 후 뇌출혈

종료 직전 도전자 주먹 맞고 의식잃어 병원 후송

WBO 인터콘티넨탈 플라이급



25일 열린 WBO 인터콘티넨탈 플라이급 타이틀매치 1차방어전 12라운드에서 종료 직전 도전자 헤리아몰에게 안면을 강타당한 최요삼이 다운되고 있다. 최요삼은 곧 일어나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지만 경기후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연합뉴스

최요삼(33·숭민체육관)이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도전자의 주먹에 맞고 의식을 잃는 바람에 뇌수술을 받았다.

최요삼은 25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민 체육회관 특설링에서 벌어진 세계복싱기구(WBO) 인터콘티넨탈 플라이급(50.8㎏) 타이틀 1차 방어전(12R)에서 헤리 아몰(24·인도네시아)을 3-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물리쳤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도전자의 오른손 스트레이트에 턱을 맞고 쓰러졌던 최요삼은 뇌출혈로 정신을 잃어 한국권투위원회(KBC) 지정 병원인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다.

권투위 관계자는 "최요삼이 경기 도중 맞은 펀치 때문에 뇌출혈을 잃으켜 수술을 받지 않고는 의식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최요삼은 이날 세계챔피언 한 계단 아래인 동양챔피언에 해당하는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방어전에서 최근 도전자 헤리 아몰을 상대로 한 수 위 경기를 펼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지만 마지막 순간 다운을 당했다. 163㎝ 단신인 최요삼은 자신보다 5㎝가 작은 도전자를 상대로 1회 좌우 연타를 앞세워 기선을 잡은 데 이어 2회 난타전을 벌였다. 하지만 2005년 미니멈급 인도네시아 챔피언을 지낸 헤리 아몰도 밀리는 와중에도 안면 좌우 연타를 날리며 만만치 않게 저항했다. 경기 도중 도전자의 머리에 두차례 얼굴을 부딪힌데다 20대 도전자에게 안면 양훅을 자주 허용한 바람에 최요삼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프라이드 챔피언 크로캅 31일 日프로레슬링 출전

미르코 크로캅(33·크로아티아)이 31일 일본 프로레슬링 대회인 '허슬 마쓰리 2007'에 출전한다.

일본 스포츠 일간 '닛칸스포츠'는 25일 '허슬 마쓰리' 주최 측이 31일 열릴 이번 대회에 지난 해 프라이드 무차별급 챔피언 크로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해 9월 '프라이드 그랑프리 2006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크로캅은 이로써 1년 3개월 만에 일본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됐다.

올해 프라이드에서 UFC로 이적한 이후 1승2패의 초라한 전적을 거둔 크로캅은 서면을 통해 "(전 프라이드 총괄본부장인) 다카다에게서 '사소한 일로 끙끙 앓지 말고 일본에 오라'는 메일을 받고 흔쾌히 승낙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크로캅은 종합격투기 룰로 싸울지 아니면 프로레슬링 룰로 경기를 치를 지 주최 측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허슬 마쓰리'는 프라이드 주최사인 DSE가 개최해 온 프로레슬링 이벤트 대회로, 시간은 다르지만 최홍만(27)과 표도르 에멜리아넨코(31·러시아)가 맞대결하는 프라이드 마지막 대회 '야렌노카! 오미소카'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덩크슛 이 맛이야" 25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창원LG-부산KTF의 경기에서 LG 워너가 호쾌한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 중계

26일 (수)

▲07/08 여자프로농구〈우리은행 : 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07/08 네덜란드리그〈페예노르트 : 스파르타〉(20 : 1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삼성 : SK〉(18 : 50·XPORTS)

▲07/08 V리그 남자부〈대한항공 : 상무〉(18 : 30·KBS N SPORTS)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토트넘 : 풀럼〉(22 : 00·MBC ESPN)

27일 (목)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선더랜드 : 맨체스터〉(00 : 00), 〈포츠머스 : 아스날〉(04 : 30·MBC ESPN)

삼성화재 '수비 배구' LIG 꺾고 8연승 질주

프로배구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2007-2008 시즌 초반 '수비배구'의 진수를 선보이며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삼성화재는 25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LIG손해보험과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3-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8연승을 달렸다.

두터운 '방패'를 앞세워 남자부 최강으로 꼽히는 기예르모 팔라스카와 이경수를 내세운 LIG손해보험의 '창'을 보기 좋게 꺾은 것이다.

삼성화재는 크로아티아 레프트 안젤코 추크가 해결사 역할을 한 가운데 고비마다 리베로 여오현을 중심으로 끈끈한 수비망을 펼친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탄탄한 기본기와 노련미를 갖춘 삼성화재는 이날 범실이 18개로 LIG(27개)보다 9개 적었다.

또 서브리시브 성공률이 55.6%로 LIG(53.9%)를 앞섰고 스파이크를 걷어내는 디그도 여오현이 23개나 성공하는 등 62개로 LIG(42개)보다 20개나 많았다.

특히 첫 세트에 23-24로 뒤질 때 여오현이 이경수의 강스파이크를 두차례나 멋지게 걷어내면서 24-24 듀스를 만든 것은 일품이었다. 비록 1세트를 빼앗겼지만 끈질긴 수비는 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2세트부터 반격에 나서는 디딤돌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G 용병 워너·블랭슨 50득점 합작 '캐롤송'

프로농구

창원 LG가 부산 KTF를 4연패 늪으로 몰아넣고 15승째를 올렸다.

LG는 25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7-2008 SK텔레콤 T 프로농구 정규리그 KTF와 홈 경기에서 두 외국인 선수 캘빈 워너, 오다티 블랭슨의 활약을 앞세워 94-74로 크게 이겼다.

15승12패가 돼 3위 전주 KCC를 1.5경기 차로 뒤쫓은 LG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7천543명 홈팬들에게 화끈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한 셈이 됐다.

반면 KTF는 최근 4연패를 당하며 7위 서울 삼성과 승차가 1.5경기로 벌어졌다. LG는 워너가 26점, 12리바운드, 블랭슨이 24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해 외국인 선수 혼자 맞선 KTF를 상대로 힘의 우위를 과시했다.

KTF는 신인 김영환이 20점을 넣으며 분전했지만 외국인 선수 미첼이 14점, 9리바운드로 부진해 완패를 면치 못했다.